

## <나에게 정원은 ○○○이다>

연번	이름	문구	의미
1	추*지	숨	정원은 일상 속에서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연과 함께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며 마치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처럼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바쁜 도시 속에서 정원은 잠시 멈추어 쉴 수 있는 험포 같은 존재이기에서저에게 정원은 숨이에요
2	심*덕	맘	1.엄마(MOM)의 품처럼 포근함을 느낄수 있고 2. 마음(맘)의 평화와 즐거움,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위안이 되어준다.
3	유*환	선물	한해를 살아가면서 기분 좋은 것을 보는 건 많지만 후각과 시각 심지어 촉각까지도 즐거움을 주는 선물과도 같은 정원이 있었기에 한해의 선물을 전부 받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4	이*희	안부	나만의 정원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꽃과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는 안부이자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인거 같아요
5	고*영	위로	조경학과 학부생 시절, 학우들과 함께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의 정원을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이 추억이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나의 일부가 정원에 담긴 느낌을 받았고, 정원 조성 후에도 마음이 힘든 날이면 자연스레 정원 생각이 나 의자에 앉아 가만히 정원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정원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제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6	김*진	설레임	수많은 나무와 꽃들이 매년 새롭게 자라고 피어납니다.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지 기대 되고 설레입니다. 또한 그 나무와 꽃들의 보면서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최*선	그리움	어릴 적 살던 시골 집엔 작지만 우리만의 정원이 있었다. 내가 태어날 적에 심었다는 나무가 내 키를 훌쩍 넘어 자라나던 그 때가, 온 가족이 모여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먹으며 깔깔대던 그 시절이, 때마다 가지치기 하시던 아버지의 젊었던 뒷모습이, 정원에 심을 꽃을 사러 가면서 잡았던 어머니의 고운 두 손이, 추억으로 남아 내게 정원은 그리움이 되었다.
8	장*호	별사탕	퍽퍽한 일상 속 달콤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9	이*호	일기장	정원의 계절마다 피는 꽃은 마치 일기장에 쓰는 하루의 감정 같아요. 봄에는 튜립이 설렘처럼 활짝 웃고, 여름엔 해바라기가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죠. 가을 단풍은 아쉬움을, 겨울 소나무는 묵묵한 희망을 말하듯 변화를 기록해요. 흙을 만지며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새싹이 자라는 모습에서 작은 성취감도 느껴요. 창밖에 놓인 화분 하나도 일상의 위로가 되죠. 정원은 말없이 제 마음을 읽고, 때로는 답을 알려주는 친구 같아요.
10	오*라	계절시계	정원은 계절마다 달리 크고 변화하는 식물들을 보여주어 계절을 알아채고 만끽하게 합니다.
11	오*균	오케스트라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가 조화를 이뤄 멋진 하모니를 완성해 귀가 호강을 하듯 다양한 꽃들과 식물들이 조화를 이뤄 눈을 호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2	이*자	작은 우주	정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세상에 들어선다. 작은 꽃잎 하나에도 계절이 담겨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에도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마치 우주의 질서처럼, 모든 것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다.  새벽에는 이슬을 머금은 풀잎이 햇살을 반기고, 한낮에는 나비가 춤을 추듯 날아다닌다. 해 질 녘이면 노을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하루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작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풀벌레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운다.  이곳에서 나는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정원은 그저 식물이 자라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숨 쉬고 사색하는 작은 우주다.
13	고*연	사계절 옷장	계절마다 옷을 바뀌이는 것처럼 테마가 바뀔 때마다 다채롭게 꾸며지는 정원에 대한 비유
14	허*영	오감 놀이터	눈으로는 다양한 꽃과 식물의 색을 시각적으로 즐겨요~  코로는 신선한 흙냄새와 꽃 향기가 어우러져 자연의 향연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의 향기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향기랍니다.  귀로는 새들의 지저귀음과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자연의 교향곡 같아요.  손으로는 식물의 부드러운 잎과 거칠게 자란 나무줄기를 만지며 자연과의 연결을 느껴요. 직접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을 때의 그 감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입으로는 직접 재배한 과일을 맛보며 정원의 결실을 즐길 수 있어요.  정원은 오감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
15	오*나	위대한 스승	정원은 노력과 관심에 대해 배신하지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가꾸는 만큼 시간의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든과정을 거치면 말로 표현할 수없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에서의 꽃 나비 벌등의 생명들과 소통하며 내가 젊어지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가꾸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만해져서도 안되고 조급해해서도 안되고 순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정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대처해주시지를 알려주는 스승같은 존재입니다
16	유*인	영감의 팔레트	봄에는 따스한 파스텔빛 벚꽃이,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이, 가을에는 황금빛 단풍이, 겨울에는 고요한 눈꽃이 정원을 가득 채운다. 계절마다 변하는 색과 향기는 내 마음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피워낸다.  정원에 서면 마치 빈 캔버스 앞에 선 듯하다. 바람, 햇살, 꽃향기-자연이 만들어내는 색채가 나의 영감을 깨우고, 삶을 더 다채롭게 물들인다. 푸르른 나무 사이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면

			<p>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는다.</p> <p>정원 근처를 걷거나 뛰면서 자연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때, 나는 한계를 넘어서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기분에 휩싸인다. 정원은 나에게 쉼터이자 활력소이며, 무엇보다 영감을 발견하는 공간이다.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사색에 잠길 때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p> <p>정원은 내 하루를 색칠하는 공간이자, 내 삶을 다채롭게 물들이는 영감의 팔레트다.</p>
17	김*미	영혼의 거울	정원을 가꾸는 손길에는 그날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요. 잡초를 뽑으며 마음의 응어리도 함께 뽑아내고 새싹이 돋을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짓죠.
18	박*영	시작	생명이 움트는 모습을 묵묵하고도 겸허하게 보여주는 정원을 보고 있노라면 내 삶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된다.
19	구*정	모자이크	서로 다른 풀과 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듯 저마다의 매력적인 모습과 향기로 하나의 정원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20	하*민	땅 위에 피어난 시	정원의 모든 꽃과 식물은 마치 자연이 쓴 시구처럼 느껴집니다.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감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와 닮았어요.
21	노*훈	힐링	정원안에 들어가 바로 보이는 푸른 식물과 꽃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피톤치드와 다양한 꽃향기가 스트레스가 줄여주는 거 같아요 또한 정원뿐 아니라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삶의 리듬을 되찾게 되는 거 같고 정원 내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평화까지 느낄 수 있어 힐링되는 거 같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기쁨을 느끼며 자연과 연결되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22	한*나	식물과의 수다 타임	잘 있었어? 오늘 몰 줄게~ 말도 안 되지만 대화는 됩니다(혼자서요??). 쑥쑥 자라주는 걸 보면 기특해서 박수치고, 말없이도 위로가 되는 친구 같아요.
23	이*인	비밀스러운 낙원	세상에서 노만 아는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있는 공간! 하루하루 피어나는 이야기들을 마주할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요.
24	박*성	침묵으로 쓰는 가장 완벽한 시	정원은 말없이 지구의 언어를 들려준다. 꽃이 피고 지는 순환, 햇빛과 바람이 오가는 리듬, 흙 속 생명의 숨결, 이 모든 것은 소리 없이도 명확하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운다. 말이 아닌 식물과 생명으로 써 내려간 이 시는, 지구를 위한 조용한 실천이자, 가장 아름다운 선언이다.
25	박*희	작은 지구 한 조각	정원은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기를 정화해주고, 계절마다 다른 색을 보여주며, 생태계를 품어 다양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죠. 삶에 쉼표가 필요한 순간, 정원은 우리에게 자연의 속도로 숨 쉴 여유를 줍니다.
26	김*태	속삭임	정원은 시끄럽지 않아요. 대신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들로 내 마음에 말을 걸어오죠.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 나는 소리,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듯함, 이슬방울이 풀잎에 맺혀 있는 고요한 아침의 기적... 그런 순간들은 마치 자연이 속삭이듯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원은 속삭임이에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고요한 대화의 공간이니까요..
27	남*	기억의 서랍	어릴 적 가족과 함께 걸던 산책길의 풍경, 그때 맡았던 꽃향기, 엄마가 이름을 알려주던 들꽃 하나, 아빠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여줬던 나비 한 마리. 그런 조각 같은 순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정원을 거닐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르니까
28	장*정	즐거운 기다림	기다려야 뿌리를 뿔어 잎도 나고 꽃도 피고 나비와 벌도 날아들고 열매도 맺고 쑥쑥 크고 또 지고 ....매년 반복되는 기다림. 두근두근 행복한 마음으로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즐거운 기다림이다.
29	정*인	꽃의 은하수	저에게 정원은 다양한 꽃들로 별처럼 빛나는 꽃의 은하수입니다.
30	윤*지	시간의 틈	매일 무채색의 건물과 무미건조한 사람들의 표정을 마주하다가 문득 지나가던 길가의 정원을 보면, 마치 시간간이 다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 시절이 되기도,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던 순간이 되기도.
31	최*주	요람	정원을 걷다보면 자연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느낀다. 일상 속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마음이 상쾌해지며 태초의 고요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곳. 그런 의미에서 정원은 나를 품어주는 요람이다. 나를 어루만져주고 안정감을 주며 충전하게 하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는 기억이 있고 돌봄이 있다. 모든 것이 쉬어가고 비바람, 추운 눈까지 감내하는 장소. 슬픔도 쉬어가고, 희망이 자라는 장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며 온갖 생명체가 자라는, 정원은 요람이다.
32	박*숙	자양강장제	지치고 힘들 때 먹으면 힘이 나는 자양강장제처럼 정원과 함께 하면 모든 근심 걱정 피로 사르르다 사라지기 때문
33	김*수	행복 충전소	힘들거나 지칠 때 정원에 나가서 알록달록 예쁜 꽃들 보고, 파릇파릇한 잎사귀들 만지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밝아 웃게 되거든요. 마치 배터리 다 닳았을 때 콘센트 딱 꽂는 것처럼, 정원에서 초록 에너지를 듬뿍 받아서 다시 신나게 하루를 보낼 힘을 얻어요!
34	함*성	보약	폐암진단 이후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작은정원에서 상추와 각종야채를 직접 키워서 먹고 있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컨디션도 좋아지고~저에게 정원은 보약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35	장*희	일상의 소중한 사치	잠시 멈춰 숨 쉴 수 있는, 자연이 건네는 조용한 안부 같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36	박*원	오아시스	나만이 갈수 있는 비밀정원~ 이라는 오마이걸 노래가 생각났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된 곳 저는 정원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수목원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생각이 더 진하게 났고요 한참 만에 찾은 나의 단 하나뿐인 한잔의 물과 같은 오아시스가 정원입니다

37	배*영	마음의 주름을 펴주는 공간	정원에서 있으면, 말이 없어도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물뿌리개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까지... 모두가 조용히 말을 겁니다. 하루를 버티고 돌아온 저에게 언제나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공간이에요. 정원은 항상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무언의 시선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의 마음을 다듬어주는 곳입니다.
38	안*자	플러그인	바쁜 일상에 지치고 힘든 나에게 정원을 거닐며 초록에너지가 충전되고 채워지는곳! 생명의 에너지가넘치는 그곳에 플러그인~~합니다!!
39	김*연	여행	컨셉에 따라 다르게 꾸며진 정원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곳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수있다
40	이*민	아이들과의 대화장	두 아이를 키우며 정원은 제게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왜 꽃은 피었다 지는 걸까?" 같은 질문을 나누는 진짜 교실이에요. 자연을 통해 배우고, 함께 돌보며 자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원은 우리 가족의 공감대이자 대화의 씨앗이에요.
41	박*아	기분좋은 꿈	저는 아이가 셋인 다자녀 엄마입니다. 늘 아파트에 살아서 정원은 상상속에서만 꿈꾸고 있어요. 삭막한 아파트에 앉아서 종종 초록색 정원을 생각해요. 넓은 정원이 있으면 무슨 꽃나무들을 심을까? 그 옆에 작은 테이블과 파라솔을 놓고 손님들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즐겨야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수 있는 포근한 잔디와 예쁜 꽃을 즐길수 있게 꽃도 심고 철마다 열매를 수확할수 있는 과실수도 심어야지. 이런 기분좋은 상상을 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지요. 그래도 집 근처에 보라매 공원이 있어서 매일 예쁜 봄꽃을 보러 나가니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물은 정말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정원은 기분좋은 꿈 입니다.
42	박*민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비밀의 방	누가 듣고 있지 않아서 더 솔직해지고, 꽃 앞에서는 괜히 시인처럼 말하게 돼요^^ 스트레스도 쓱쓱 풀리고, 혼자 웃다가도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아? 하고 물어보게 되는 곳!
43	곽*주	피크닉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정원을 걸으며 나무와 꽃을 감상하면 그 자체로 큰 힐링이 됩니다. 특히 햇살 좋은날 매트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최고의 피크닉이죠.
44	오*민	오래된 친구	나에게 정원은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 같아요.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며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작은 새 한 마리 날아드는 걸 보며 마음이 환해지기도 하지요. 손으로 흙을 만지고, 나무에 물을 주는 시간은 제 삶에 여유와 위안을 줍니다. 정원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소중한지는 벗입니다.
45	김*경	조용한 초대장	정원은 정신없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다. 정원은 모두를 향한, 그리고 각자의 내면으로 향하는 초대장으로 우리에게 말 걸고 있다.
46	노*영	살아있는 교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소입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 계절의 변화, 생태계의 균형 등을 직접 경험하며 자연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 인내와 끈기도 함께 배우는 삶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47	이*경	작은 세계 여행	한 발짝만 걸어도 다른 식물, 다른 향기, 다른 색이 나타나거든요. 매일 가는 공간인데도 늘 새롭고, 마치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48	김*희	일상의 특별함	일상에서 새로움을 느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항상 보는 길에서 새로운 꽃들과 나무들이 피어나기에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일상의 특별함이라 생각합니다.
49	이*은	오늘을 잘 살아갈 용기	매일매일 커가는 꽃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늘도 잘 살아갈 용기를 연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50	임*영	할머니 약손	생각만으로도 이미 벌써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는 듯한 긍정적인 건강한 이미지가 가득한데 실제 한번에 터치 만으로도 편안함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함께하고픈 특유의 따스함과 온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